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도심 폭발 사고 논평서 - 살롬나비

베이루트항 폭발사고에 애도를 표하여 사고가 잘 수습되고 주민이 안정을 되찾기 바란다

지난 2020년 8월 4일(이하 현지시간) 레바논 Lebanon의 수도 베이루트Beirut 항구 도심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인하여 수천명의 인명의 사상 피해, 많은 건물과 차량 등이 파손되어 재난 수준의 큰 피해가 있었던 사고의 보도에 접하여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못하여 레바논 국민에 대하여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명한다.

레바논 정부는 항구 참고에 오랫동안 보관돼 있던 인화성 물질 질산암모늄이 대규모로 폭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레바논 방송 LBC는 최고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 근로자들이 문을 열었던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불이 붙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마드 하산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5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이루트의 폭발 사망자가 135명, 부상자가 약 5천명으로 각각 늘었다"고 밝혔다.

15년 넘게 레바논에서 난민 시역을 하고 있는 정 비율 선교사는 지난 8월 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을 이렇게 표현했다. 당시 그는 사고 지점에서 25km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충격 파를 고스란히 느꼈다고 했다. 정 선교사는 "건물이 출렁거렸고 주변에 있는 건물을 유리창이 파손됐다"며 "현지 친구들도 히로시마 원자탄 이후 가장 큰 폭발 같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레바논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레바논은 아랍권 국가 중 종교·언론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이슬람 시아파 무장집단인 헤즈볼라를 통해 레바논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란은 서방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나섰다. 레바논 시민들은 6일(현지시간) 저녁에도 시내 중심가에서 반정부 시위를 이어갔다. AP통신은 "폭발 참사 이후 이번 에이팔로 지도자들에게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베이루트의 소식에 접하면서 살롬나비는 한국정부가 이러한 레바논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기도하며 한국 교회가 이들을 향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베이루트 시민들이 평안을 되찾기를 바라면서 다음같이 우리의 관심을 표명한다.

1. 베이루트는 중동 지역에서 기독교회와 교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으로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많은 곳이다.

레바논인들은 인종적으로 페니키아인·그리스인·아르메니아인·아랍인의 피가 섞인 혼혈종이다.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교도(수니파와 시아파)가 가장 많아 5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다음이 그리스도교도(마론포, 그리스정교, 기타 파벌)로 약 40%이고, 드루즈파(시아파의 한 분파)가 약 7%를 차지한다. 레바논은 다수 정파가 권력을 분할해 국가를 운영하

는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갖고 있다. 공직은 19개 정파가 나눠 갖고, 의회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절반씩 차지한다.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대통령은 마론포 기독교, 의회 의장은 이슬람 시아파가 맡는다. 종파간 차이가 정파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나름의 장치를 둔 것인데, 사실상 무기한 권력을 보장받다보니 부정 부패와 무능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계 지도자들이 다음같이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중동교회협의회는 표명했다: "재앙이 덮인 베이루트가 비극에 직면해 있다." "(베이루트와) 함께 하자.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과 부상을 입은 이들,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오 주님, 사랑하는 레바논과 마음이 깨어진 현지인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소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지 마소서"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다음같이 기도했다: "오늘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끔찍한 폭발로 영향을 받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트루로 의 필립 마운트스테인 주교는 "베이루트를 위해 애도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박해에 관한 정부 보고서를 조사하고 있는 마운트스테인 주교는 2년 전 CMS 미션과 함께 이 도시를 방문해 트루로 교구와 현지 기독교인들 사이를 연결시켜 주고자 했다. 이처럼 세계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많은 중동 지역이다.

2. 초대형 폭발 사고가 레바논 정부의 무능과 부정 부패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의 불만이 극심하다고 전해진다.

레바논 베이루트항에서 발생한 초대형 폭발 사고가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서 비롯된 인재를 드러내면서 사회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한다. 오랜 내전과 고질적인 부정부패로 인한 민생 파탄에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친 레바논에서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불붙고 있다고 전해진다. 일단 베이루트항 폭발 사고는 2750에 달하는 질산암모늄이 7년간 항구 참고에 방치돼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항구와 세관 측이 폭발우려로 수차례 법원에 제출장을 요청했음에도 묵살됐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한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항을 찾은 지난 8월 6일(현지시간) 한 연성이 '레바논 정부가 테러리스트'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언론 보도는 베이루트 도시의 표정을 볼 수 있는 한 단면이다.

3. 서방 민주국가들은 레바논이 잘 수습하도록 국제적으로 도와야 한다.

폭발 사고 직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곧바로 대규모 지원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수송기로 구호 물자를 보냈고, 유럽연합(EU)은 3300만유로(약 465억원) 규모의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때 레바논을 식민 통치했던 프랑스의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휴가를 중단한 채 베이루트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 레바논 시민들이 참사 현장을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에게 정권 퇴진에 협조달라고 요청하는 이례적인 장면도 벌어졌다.레바논은 남쪽으로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다른 아랍국가로 가기 위해 시리아를 관통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중동 최대의 교전단체이자 레바논의 정당조직인 헤즈볼라의 근거지이기도 하다. 헤즈볼라라는 반미 국기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이 둘을 이어주는 역할을 시리아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득세해 반미 성향이 강해지는 상황을 늘 경계해왔다. 이번 폭발 사고로 레바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헤즈볼라와 이란은 민심을 잃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의 고위 외교관이 선거법 개정과 조기 선거 개최를 요구하며 사퇴할 파장이 주목된다. 레바논의 정부가 실정을 숨기지 시인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정국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미국과 프랑스 같은 영향력 있는 서방국가들은 레바논이 자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4. WEA, WCC 등 세계 교회도 이에 범 지구촌으로 기독교 인도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베이루트 항구에서 두 차례 큰 폭발이 발생해 많은 건물과 차량 등이 파손되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던 가운데, 교계 지도자들이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세계복음주의 연맹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of the WEA), 텐데로 주교(Bp Efram Tendero),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비극적인 생명의 상실을 애도하며 이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야기한 추가적인 트라우마에 대해 염려한다. 우리는 베이루트 주민, 레바논 나리에 심적으로 연대하며 한국교회와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기를 호소한다." 현재 레바논은 2주간 비상戒嚴령이 선포된 상황이다. 무장 군인들이 배치됐고, 사고 지역 인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가운데 정 선교사는 폭발 사고 후 유증도 심각하지만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라고 말했다. 세계 복음주의연맹 중동전문가(WEA's Middle East Coordinator) 잭 사라 목사(Rev. Dr. Jack Sara)는 다음같이 표명하였다: "이러한 재난 한 가운데 우리는 교회와 신자의 이타적인 반응에 감동받는다. 이들은 궁핍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활발히 나서고 손상된 집을 복구하고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들이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와주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이 상황을 지혜롭게 처리하도록 어두운 시기에 빛의 집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WEA, WCC 등 세계기독교연맹체들이 협력하여 이 지역의 난민들과 피해 교회를 도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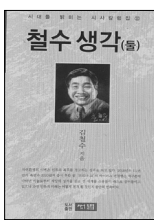
2020년 9월 1일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신간안내

철수 생각

'시대를 밝히는 시사칼럼 <코로나 19의 팬데믹 현상> 등



이동문학가 김철수 박사의 제241번째의 저서로 '시대를 밝히는 시사 칼럼 집 [철수 생각(들)]'이 도서출판 샛별에서 출간됐다. 이 책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전 세계인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고 가 일상생활을 형클어지게 만든 중국 우한 발 '코로나 19'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다각적인 원인규명과 대처방법에 대한 답론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조망했다. 저자는 "자연환경의 이변은 인류의 최후를 경고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2018년의 11년만의 폭염이 2020년의 중국 우한 발 '코로나 19'의 바이러스 전염병은 지구촌에 나타난 재앙이 되어 전 세계를 혼란과 공포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과연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 불안의 연속선상에서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다." 고 말한다.

저자 : 김철수 | 도서출판 샛별 | 판매가 : 13,000원 신국판 320쪽

쓰담쓰담 로마서



말씀이신 주님을, 손으로 새기고 마음에 담고 온전히 돌아가는 시간. 쓰고 담으세요.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고 필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담으세요. 쓰고 돌아가세요. 정성껏 새겨진 깊이 묵상할 때 내 삶에 말씀이 숨쉬고 그분을 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쓰담쓰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위로하고 삶에 등불이 됨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천천히 소리 내어 읽으며 읽어보세요. 캘리그라피를 따라 쓰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남는 구절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마음을 '나의 묵상' 공간에 기록하세요. 햇살공 묵상과 일러스트를 보며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필사 시작과 마무리를 기도로 열고 닫으며 받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도 흘려보내세요.

저자 : 햇살공 (김나란×김연선) | 출판사 : 규장 | 발행일 : 2020-08-31 | (172*230)mm 128p | 판매가 : 8,000원

주일학교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라 교회학교 교사들의 영혼을 깨우는 도전



『주일학교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라』는 현재 위기에 직면한 교회 주일학교 교육을 갱신하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 책은 교회학교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을 주 소제로 삼으면서도, 교회 소모임이라는 환경을 뛰어넘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적하게 사는 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보여주는 가슴 떨리고도 위엄찬만한 '복음 교사'의 자리로 독자들을 초청하고 있다. 저자 책 클럽엔하우어는 주일학교 교사이자 교육과정 입안자로서 세계의 교회 교육 현장을 두루 경험한 전직 보도국 PD다. 그 자신이 오랫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한 만큼, 일차적으로 주일학교와 중등부 성경 교사의 교육 현장을 다루고 있다.

저자/역자 : 책 클럽엔하우어/정혜영 | 출판사 : 새물결플러스 | 발행일 : 2020-08-25 | (148*220)mm 368p | 판매가 : 18,000원

내게도 봄날은 온다



이 책을 내삼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삶이 기록된 평범한 저서전으로부터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독자들이 읽고 감동 받아 이분의 삶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교훈서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 총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이학박사 나기장 추천의 글 중에서 나는 죽을 때 웰다잉(Well-Dying) 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산다.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아내를 만나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오. 당신이 떠난 후 나는 열심히 맛있게 살았고 사명을 잘 마쳤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면서 영생을 누린 것이다. 저자 서문 중에서

저자 : 나삼길 | 출판사 : 해피&북스 | 발행일 : 2020-08-31 | (153*220)mm 266p | 판매가 : 13,000원

나쁜인권 조례 반대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반대 청원 취지와 이유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제주도민연합과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 등이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의정장에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반대 청원서'를 내고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반대 청원의 취지 및 이유

1. 반대청원 취지문 전문 인권(人權)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며 또 존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학생의 인권 존중은 성장기에 있어서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학생으로서의 본질적인 책임과 건전한 의무는 배제된 채, 미래를 준비하며 배워야 할 학생들에게 비교육적·비윤리적인 것도 권리로 포함하는 과도한 인권은 교사들이 사명감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고 나아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교육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성교육의 필요

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순한 지적 교육이 아닌 인성, 생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생의 자율성과 함께, 교육자의 훈육이 서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로 구성된 학교 교실에서, 비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생들의 각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한편, 동시에 교사에 의한 건전하고 적절한 훈육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학교는 교육이행자는 특수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의 규칙은 관리 주체가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칙이었고 학교 설립이념에 따른 교육이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철학의 문제를 무시하고 학생의 인권적 측면만 강조하며 접근하는 것은 한바퀴로 두발자전거를 움직이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이같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개인의 자기결정 즉 자율과 개성,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각학교의 학칙을 존중하지 않고 학교마다 나름대로 학칙에 따른 자율적 운영을 무시한다면, 이는 반 인권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숙한 사회, 건강한 사회일수록 자

유와 권리에겐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소홀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주체권리와 의무 규정을 분산한 바에 따르면 학생 및 학생을 대표하는 주체에게는 10가지 권리에 10가지 의무가 주어지지만, 교장 및 교직원에게는 2가지 권리와 74가지 의무, 교육감에게는 4가지 권리와 41가지 의무, 설립경영자에게는 2가지 권리와 22가지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와같이, 피교육자인 학생측에는 의무는 거의 없이 권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부여되어 있으며, 교육하는 주체에게는 권리는 거의 없고 의무가 압도적으로 많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안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4조(책임과 의무) 3항에 학생은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외에는 학생으로서의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사항이 단 한 줄도 나타나 있지 않고 대부분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5조(학생에 관한 권리), 제6조(영구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제7조(휴식을 취

할 권리),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0조(안전에 대한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2조(사생활의 자유), 제13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15조(양심, 종교의 자유),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제17조(자치 활동의 권리),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20조(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건강환경에 관한 권리), 제22조(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6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

학생권리에 대한 내용이 90여 가지가 넘고,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 교장 및 교사, 교직원에게 부여되는 의무는 6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정되면 학칙보다 조례의 강제성이 우선한다는 법정신에서나, 일반적으로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성향 상 여러 가지 규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학생인권조례만을 절대적이고 유일한 규정으로 인정하거나 수용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발생하고, 부모의 양육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며, 교사의 효과적 인 학습지도와 바른 인성교육이 어려워지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손상되며 더욱 교실이 붕괴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된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의 실례를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학력저하, 청소년 폭력증가, 교원탈퇴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교육의 현상을 보면서 다음세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제주 학부모 연대를 비롯한 제주 여러 시민단체, 일평생 교육현장에서 헌신하여 왔던 교사들의 모임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를 비롯한 제주의 교회가 제주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과 교사임을 밝히며,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반대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II. 반대이유

제주학생인권조례의 불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관련 법률에서 이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기본법 제20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 보장)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인 법률에서 이미 학생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로 별도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학생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면, 기존의 학교 규정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비인권적인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하여 해결하며, 또 교육청 등 교육관련 당국이 학교나 교사 등의 비인권적인 행위나 조치를 감시·감독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중략... 전문은 목양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부모와 자녀의 갈등,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일으키며, 부모와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며,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학생인권조례임을 알고 있는 제주학부모연대를 비롯한 제주 시민단체, 제주교총,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 및 제주 바른사회문화대학위원회는 다음세대의 주역이며, 우리의 보배인 학생들과 바람직한 제주교육을 위해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하며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철회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020. 8. 31

청 원 인

(총대표) :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제주도민연합